

혼자가 아닌 함께 동행하는 길,  
힘들지만 그 만큼 가치 있는 일,  
**안전**입니다.

이너지 오토모티브 시스템즈(주)의 안전관리자 이 정 협 과장

안전관리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인정을 받거나 업무실적을 내기도 힘들고 더욱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료직원들과 함께 합심하여 개선활동을 열심히 펼쳐 연말에 무사고를 달성했을 때 그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가 그렇겠지만 안전은 절대 혼자 이루어 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하기에 그 일은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취재 | 임재근 기자

### 생산팀에서 근무하다가 안전관리자로 발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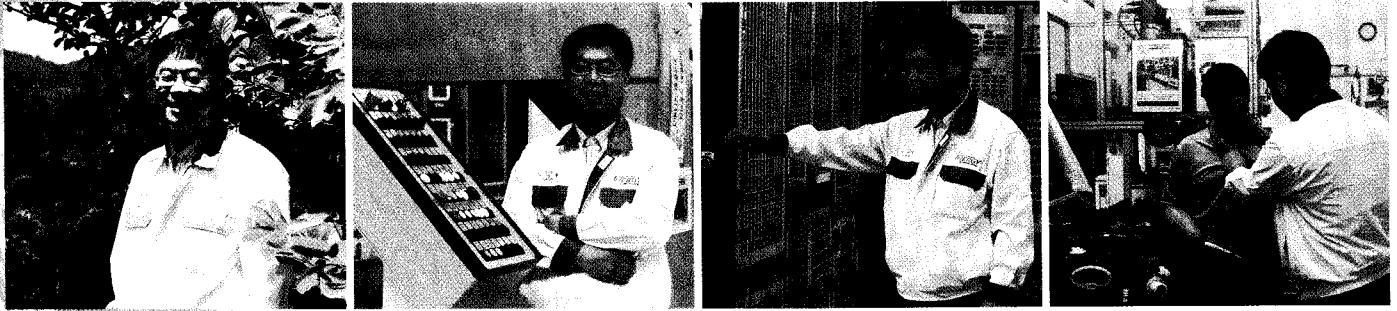
올해로 마흔 한 살의 이정협 과장은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마치고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1994년 대학 졸업 후, 이너지 오토모티브 시스템즈(주)구 폴리텍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생산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갓 신설된 회사라 근로자가 많지 않았고, 특별히 안전에 대한 회사방침도 없었던 탓에 이정협 과장 역시 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그가 이듬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게 된 것은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되어 근로자가 늘고, 마침 취업준비를 위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본격적으로 안전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 신입 안전관리자

당시 27살의 젊은 청년이 현장에 대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업무를 전담한다는 것이 무척 부담이 되었다. 그런 부담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업무를 마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관리기법들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론적인 내용은 책을 보거나 관련 자료를 공부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됐지만 막상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니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같은 계열사 선임 안전관리자의 조언과 도움은 그에게 캄캄했던 밤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이 느껴졌다.

### 안전, 아름다운 동행

15년이 지난 지금 처음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과거보다 향상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더 안전해진 작업장, 작업공정, 작업 설비들, 그 동안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안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 만큼 보람을 주는 것도 모두 근로자와 더불어 일어난다고 그는 이야기 한다. 품질이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비의 개선이나 교체가 필요하다. 그 만큼 작업방법의 개선이나 신설비의 도입은 바로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대라는 눈에 띄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안전이란 측



면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신설비 도입이나 작업방법 변경은 더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언제든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안전사고는 사람과 관련된 휴먼에러에 의한 원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투자로 설비를 교체하고 작업방법의 개선이 있다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투자 대비 효과는 바로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결국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먼에러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반복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근로자의 행복이 가장 큰 보람

경영의 측면에서 안전보건이 중요해지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작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작업설비, 작업방법 교체나 신설 시에도 생산량증대, 품질보다는 안전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그에 따라 안전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로 요즘 일을 하는 보람도 많이 늘었다고 한다.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더 나아가고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지금보다 훨씬 안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에 그는 더욱 이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 한 분야에 15년의 경력이 쌓이면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쉽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길 텐데, 안전만큼은 언제나 새롭게 느껴져 가끔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 또한 이일을 하는 매력이라고 그는 말한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인증을 받은 OHSAS 18001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라 현장과 경영전반에 잘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올해는 다른 부서와 그리고 근로자 전원이 합심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OHSAS 18001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고자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 목표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한 최근 경제불황 여파로 이곳 회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껏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왔듯이 이번에도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

▼ 이정협교장의 가족(부인 강효정씨, 첫째 딸 이해원(7살), 둘째딸 이은현(4살))

